

투데이 칼럼

북한 현송월 위상

요즘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밀착 수행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으로 잘 알려진 현송월이다. 가수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견은 원래 김여정 부부장이 담당했었다. 그런데 현송월이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 최측근의 위상을 갖게 됐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인기 가수에서 의견 담당으로 변신한 그녀의 행보가 궁금하다.

지난 6월 11일 북한 노동당 분부청사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앞두고 리병철 조용원 김두일 등 북한의 핵심 간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모두 모인 회의장이었다.

김 위원장을 위해 친철히 문을 열어 주는 현송월의 모습이 포착됐다. 회의가 끝나고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 서자 다시 재빠르게 달려와 회의장 문을 여는 사람도 그녀였다.

이 장면은 현송월이 북한의 주요 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짐작케 했다. 그의 의견 활동은 올해 초 열린 8차 당 대회에서도 확인됐다. 뒤쳐져 있다 해도 견결음으로 김 위원장 옆으로 다가가고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서 현송월의 자리를 확보해 주는 모습이었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밀착 수행하고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있는 현송월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의견 담당자라는 평가다. 그는 과거에 모란봉 악단 단장으로 맡았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으로 알려진 현송월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왕재산 경음악단과 보천보 전자악단 등에서 활동했다.

북한 인민보안성 협주단 성악배우 출신인 한서희씨는 당시 북한 내 현송월의 인기가 상당했다고 전한다.

현송월은 왕재산 경음악단에서 허스키한 음색으로 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했는데 북한에 흔하지 않은 음색을 갖고 있다 보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 특히 '준마치녀'라는 노래를 해서 북한에서 인기를 끌었던 대중가요 가수였다.

그녀의 이런 인기는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공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열린 '국제 부녀절 기념 음악회'에서 사회자의 즉흥적인 요청에 무대로 오른 사람은 바로 현송월이었다. 당시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자신의 히트곡 '준마치녀'를 열창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역할은 대중 가수에 그치지 않고 정치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2년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창단된 모란봉악단의 단장을 맡았다. 2014년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는 군복을 입고 공개 연설에 나섰다.

당시 공연 내용을 놓고 중국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현송월은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남측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였다.

당시 현송월은 서울과 강릉 공연을 위해 북측 예술단의 단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다. 1박 2일 일정 내내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북한에서 예술인들은 체제 선전에 선동하고 당의 방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최고로 올라가면 인민배우, 노력영웅 등의 칭호를 주었다. 그러나 현송월처럼 김정은 앞에서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했던 예술인은 없었다.

지난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등정에 나섰을 때도 현송월은 백마를 타고 동행했다. 지난 1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 당시 김 위원장과 같은 점원색 가죽 코트를 입고 등장해 시선을 끌기도 했다.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도 리설주 여사와 조용원 당 조지비서,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해 김 위원장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3년 전 남한을 찾아 자신을 삼지연 관현악단장이라고 소개했던 현송월은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를 열창했다. 북한 인기가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의견 담당까지 올라선 현송월의 위상이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사설

이재용 가석방된 삼성의 미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개월 만에 지난 13일 가석방됐다. '총수 부제'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삼성의 의사결정 과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특히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가장 먼저 행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조5천 원 투자 계획을 밝힌 미국 반도체 공장의 후보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미뤄졌던 인수합병 등 대규모 투자도 분게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가석방에 우호적인 여론이 커진 건 지난날 삼성가에서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공개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이전 과거 삼성 특강 당시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사회 환원의 일부다. 13년 전 삼성 특강에 기소된 고 이건희 회장의 혐의는 배임과 세금포탈 혐의였다. 삼성은 4억 미술품 2만 3천여 점과 함께 모두 1조 원을 추가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 회장이 약속한 환원 대상은 삼성 임원 명의로 삼성 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사교할 아 차익을 얻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은 차명주식이었다. 13년 동안 약속을 미루면서 1조 7천억 원이었던 주식 가치는 11조 원이 됐다.

하지만 이번 사회 환원은 약속과 달리 미술품으로 이행됐다. 고 이건희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2009년 말 사면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다스 소송비 68억 원을 불뚝로 준 대가였다는 사실은 2018년 드러났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를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사면해 줄 테니 경제에 이바지하라'는 것은 특권계층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국가경제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대국민 신뢰 회복도 이 부회장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전주시 노인일자리 모집의 의미

전주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추가 모집에 나섰다. 이미 이달 8월 20일까지 주소지 등 주민센터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등 7개 기관에서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 자리에 참여할 670명을 모집했다.

분야별로는 공익형 500명과 사회서비스형 170명으로 오는 9월부터 3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등 주민센터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사원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공익형의 경우 하루 3시간 씩 주5회씩 걸쳐 근무하게 되며 매월 2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와 안골·금암·양지노인복지관, 전주·효자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1일 3시간씩 주 5회 근무해 월 최대 7만2000원(연차수당 별도)이 지급된다.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체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희망자는 각 수행기관을 방문 해 참여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통장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모두 1만 1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과 신체 활동을 돕는다. 노인이 겪는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감 같은 정신적 문제에 도움이 된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오히려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덜어주는 일이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노후 설계 상담, 각종 노후 정보를 제공하여 노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자리 사업이 중요하다.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교육 및 활동 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119시민수상구조대를라치며

전북 남원시 인월면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될 즈음인 7월 10일부터 1일 12명(소방7명, 자원봉사 5명)의 인원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을 시작, 08월 18일까지 총 38일간 구조활동 12건(구조 5명, 익수심정지 1명), 구급활동 30건(병원이송 13건, 현장 처치 17건)의 실적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는 상황 때문에 피서객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 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안전하게 발걸음을 물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무리에 속해 즐거운 물놀이를 할까 즐기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고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내 가족의 일처럼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7월 13일 발생한 음주 후 익수 심정지 사고이다. 익수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을

나갔을 때 시작부터 첫 번째 어려움을 맞닥뜨렸다. 바로 정확한 사고위치 파악이다. 신고 내용으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위치를 특정하여 인근도로까지 도착하였지만, 도로변에서 10분여 정도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지역주민들만 아는 외진 장소여서 사고 현장까지 찾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익수자를 구조하겠다는 일념으로 신고자와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 목격한 것은 맑고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신고자의 모습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은 동료 구급대원의 손에는 땀의 온기가 아직 느껴졌다고 한다.

심폐소생술 등 구급대원의 전문처치 후 병원이송을 위해서는 구급차가 있는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어려움을 맞닥뜨렸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들것을 이용해 구급차까지 이동하



문진호
남원소방서 인월 119안전센터장

는 경로는 좁고 험난해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흡 및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만약 사고 장소가 대원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였다면 조금 더 빠른 처치와 병원이송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 꺼져가는 생명을 끝내 붙잡지 못한 그 공허한 실정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요한 안전수칙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 첫째, 음주 후 물놀이 하지 않기. 음주 후

에는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등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계곡에서 낙상이나 추락으로 부상 및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 둘째, 물에 들어가 기 전 반드시 준비 운동하기. 준비운동 없이 입수할 경우 근육경련으로 익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통해 근육경련을 예방한다. ▲ 셋째, 낮은 수온에는 적을한 후 입수하기. 계곡의 경우 수온이 낮아 갑자기 입수할 경우 심장마비가 올수 있으며, 장시간 수영으로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수온에 적응하며 수영하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심장마비, 저체온증을 예방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주위 인명구조할이나 막대기 등을 찾아 요구조자가 잡고 나오도록 하는 등 재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구조에 자신이 없다면 119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무리한 구조는 삼가야 한다.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키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여행시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 사고가 없는 시원한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